

‘워케이션’을 지역 활성화 기회로 삼은 도시들

제주도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2023.1.26.

부산시 관광진흥과
2023.2.6.

제주도, 워케이션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제주도는 워케이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확충해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워케이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작년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워케이션 오피스 시설 구축 ▲제주 워케이션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홍보 ▲수도권 기업 대상 집중 홍보 및 기업간거래(B2B) 전담 컨설팅 서비스 제공 ▲다양한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발굴 ▲기업 인센티브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집중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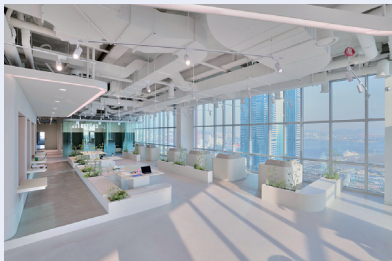
특히 워케이션 인프라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씩 워케이션 오피스를 조성한다. 서귀포시에는 이미 구축된 제주혁신도시 소재 워케이션 오피스를 리모델링하며, 제주시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장소를 물색하여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신규 구축에 나선다. 구축될 워케이션 오피스는 제주에서 수도권 본사 근무와 이질감 없는 원활한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각종 시설·공간·기기 및 오피스 연계 숙박시설 제휴 지원 등으로 원격근무의 효율성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워케이션 거점센터’ 개소

부산시가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2월 7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형 워케이션에 참가 의향을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와 팸투어 등이 진행되었다.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선정되어 부산시 내 인구감소지역 세 곳(동구·서구·영도구)과 인구관심지역 두 곳(중구·금정구)을 중심으로 거점센터와 위성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부산시 전역에 파트너 센터를 구축하여 업무공간을 지원함은 물론, 숙박과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부산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으로는 역외기업 유치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는 아스티 호텔 24층 708.5m² 면적에 업무공간 50석, 화상 및 폰부스 4개실, 회의실 및 이벤트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인 업무에 초점을 맞춘 몰입형 좌석과 협업을 위한 회의형 좌석을 마련하고, 방화벽을 갖춘 독자적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등 원격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 워케이션 센터 업무공간(상)과 이벤트 라운지(하)
출처: 부산시. (2023). 부산시,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개소! 2월 6일 보도자료.